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오 거 돈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편집 / 제작: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신임회장에 오거돈 동문(21회) 선출

“역동적인 동창회 만들겠다” 취임 포부 밝혀 총동창회 정기총회... 전임회장에서서 동창회기 넘겨받아

총동창회는 3월 29일 저녁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용흠 회장(19회)의 후임으로 오거돈 동문(21회, 한국해양대 총장)을 선출했다.

오 신임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임 이용흠 회장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어받아 더욱 역동적인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본부동창회 이사진과 기별, 지역별, 직능동창회 임원 등 약 2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 신임회장은 전임 이 회장으로부터 총동창회 회기를 넘겨받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우명수 본부동창회 고문(5회)의 격려사, 임우근 재경동창회 회장(19회)의 축사, 김경희 재경동창회 고문(9회)과 안강태 본부동창회 명예회장(11회)의 건배사가 있었으며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벌이다 선종한 故 이태석 신부

(35회)의 숭고한 삶을 담은 다큐 ‘울지마톤즈’가 상영됐다.

이날 지난 2년간 본부동창회를 이끌어 온 이용흠 전임회장에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모교의 이름을 빛낸 故 이태석 동문에게는 특별공로상이 주어졌다. 그 밖에 유공표창을 받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희(9회·재경 고문) △이병찬(23회·전 해운대지역 회장) △곽두희(24회·본부 덕형포럼 운영위원장) △김종석(24회·전 경남고 교장) △류명석(31회·사하지역 회장) △박명진(33회·덕경회 사무국장) △이남기(35회·용마언론인클럽 사무국장)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예산결산안 및 2011년 본부동창회 운영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사회 내에 상임분과위원과 기획분과위원을 신설하고 자문위원 ‘약간명’을 두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면에 오 신임회장 약력>



주요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희 재경고문, 이길상 본부자문위원, 임우근 재경회장, 오거돈 신임회장, 이용흠 전임회장, 우명수 본부고문, 안강태 본부명예회장, 송규정 본부자문위원, 김원용 경남고 교장.

故 이태석 동문 흉상 모교 교정에 세운다

총동창회 결정... 기념사업 등도 함께 벌이기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다가 지난해 선종한 故 이태석 신부(35회)의 흉상이 모교 교정에 세워진다.

총동창회는 3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고인의 흉상건립과

함께 각종 기념사업 등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故 이태석 신부의 흉상건립은 임우근 재경동창회장이 지난 2월 9일 취임사를 통해 제의한 것으로 이날 총동창회가 이를 수용

키로 결정함으로써 실현되게 됐다. 총동창회는 앞으로 흉상제작과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9면에 관련특집>

총동창회, ‘모교 70년사’ 편찬 예산 1억원 승인

고문단 의결에 따라 재경동창회 경비분담 2억원

‘모교 70년사’ 편찬을 위한 예산 1억원이 3월 29일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됐다.

이로써 그동안 수차례나 발의됐다가 중도에서 유야무야됐던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 편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동창회는 모교 70년사 편찬에 필요한 예산 3억원 중 나머지 2억원은 지난 2월 15

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모교 70년사 편찬추진위 고문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경동창회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모교 70년사 편찬작업을 위해 그동안 편찬위원장에 김경희 동문(9회, 재경동창회 고문)을 선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관련기사 4면>

알립니다

만화 <용마君> 이번 호부터 연재



안기태 화백이 그리는 만화 <용마君>이 이번 호(15면에 게재)부터 동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 화백은 30년 이상 부산과 영남지역에서 만화를 그려오고 있는 중견작가로 국제신문에서 ‘피라미’를, 부산일보에서 ‘어리병씨’를 연재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화의 주인공인 <용마君>은 앞으로 우리 동문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동창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기행 <다시 보는 부산> 연재

김형운 동문(18회)의 <도시기행 ‘다시 보는 부산’>이 이번 호부터 15면에 연재됩니다.

김 동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港都 부산의 이곳저곳을 찾아가 새롭게 변한 부산풍경과 거기에 얽힌 추억들을 유려한 필체로 사진과 함께 풀어놓게 됩니다. 김 동문과 함께 하는 추억의 여행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주요기사 안내

- * “수고 많았습니다” 임기 끝낸 이용흠 전임회장 인터뷰 - 3면
- * <論評> 발전기금 사용처와 관리방안 밝혀야 한다 - 4면
- * 故 이태석신부는 ‘자랑스런 경남고 동문’ - 9면
- * <은사 열전> ‘허허발발’ 허 발 선생님 / 김경희 - 10면
- * <그 때 그 시절 이야기> 고학과 휴학으로 다져진... / 김기춘 - 11면
- * 나의 아코디언 연주인생 50년 / 심성락 - 12면
- * <秀筆雜記> <김성언의 人文산책> - 13면
- * <꽃 이야기> ‘동풍세우에 눈물 머금은 여인’ - 14면
- * <도시기행 ‘다시 보는 부산’> 구덕고개와 꽃마을 / 김형운 - 15면



눈 덮인 모교 교정 지난 2월 14일 부산지역에 이례적으로 거의 종일 눈이 내려 7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부산지역이어서 ‘눈 쌓인 모교 교정’을 담은 사진은 아주 희귀하다. 사진은 이날 모교의 야구부 부원들이 운동장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김형윤(18회)>

본부 덕형포럼, 정희원 서울대병원장(23회) 초청 특강



본부 덕형포럼(회장 오거돈)의 제5회 초청 특강이 지난 3월 15일 오전 7시 부산 롯데호텔 아스톰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나온 정희원 병원장은 ‘건강한 뇌를 위하여’란 주제로 뇌졸중과 치매예방에 관한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해 8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조찬을 겸한 이날 모임에는 이용흠 본부 동창회 회장, 조규향 동아대 총장(14회), 송규정 윈스틸 회장(16회), 이종철 남구청장(16회), 김길제 (주)M.S.C 대표(18회), 허범도 부산시 정무특보(22회), 권명보 국제신문사 사장(27회),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27회), 이원철 법무법인 국제 대표변호사(28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23회 동문 13명이 동기인 정 원장을 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했는데 23회 동기회(회장 김태용)는 앞으로 본부 덕형포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 경비 중 일부는 백창영 동문(23회) · 협성해운(주) 대표이 협찬했다. *

고 2 △대동고 2 △부흥고 2 △브니엘고 2 △브니엘여고 2 △양정고 2 △연제고 2 △용인고 2 △이사벨고 2 △학산여고 2 △해운대여고 2 △화명고 2

<자료 : 중앙일보>

참담한 결과... “이 일을 우짜면 존노?”

경남고 올해도 서울대 합격자 단 한명도 못내 일반고인 동래고, 동아고, 대연고는 각 6명씩 합격

모교인 경남고가 올해에도 서울대에 단 한명의 합격생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4일자 일간지들은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일반고 중에서 과거 명문고로 꼽혔던 경남고, 부산고 등은 올해도 서울대 합격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반면 동래고, 동아고, 대연고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각 6명씩을 서울대에 합격시켰으며 여고로는 예문여고가 5명을 서울대에 합격시켜 일반여고 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올해 64개 고교에서 서울대 합격생 2백3명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

◇부산지역에서 2명 이상 합격생 배출한 고교와 합격자 수
△부산과학고 19 △부산국제고 15 △부산외고 8 △대연고 6 △동래고 6 △동아고 6 △해운대고 6 △예문여고 5 △동인고 4 △부산국제외고 4 △삼성여고 4 △동천고 3 △부산남일고 3 △부산예술고 3 △성도고 3 △해광고 3 △건국고 2 △경원고 2 △경해여고 2 △금곡고 2 △기장고 2 △남산

재경동창회 2011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 성대 개최

임우근 신임회장, “故 이태석신부 흉상 건립” 제의

재경동창회 2011년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가 지난 2월 9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공식취임한 임우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 선종한 우리 용마의 자랑인故 이태석신부(35회)의 흉상과 6·25 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동문선배님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모교 교정에

세우자”고 제의했다.

임 회장은 또 “모교를 ‘한국의 이튼 스쿨’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모교를 지원하자”고 말하고 이를 위해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3회), 박희태 국회의장(11회), 이용흠 본부동창회 회장 등이 참석, 축사를 했다.

이날 모임은 1부행사에서 ‘자랑스런 용마상’, ‘공로상’

시상과 장학증서 수여 등이 있었고 2부행사에서는 ‘복’시 루떡 자르기, 축배, 만찬사 등에 이어故 이태석 동문의 숭고한 삶을 기록한 다규 ‘울지마 톤즈’ 상영이 있었다. *

오거돈 신임회장 약력

△서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현 한국해양대 총장, 국제해양대학교연합 의장, 세계해사대학(WMU) 이사회 이사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 시장 권한대행, 부산시 정무부시장, 부산시 기획관리실 실장, 부산시 동구 구청장, 내무부 지도과 과장 등 역임.

오거돈 동기(21회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의
제32대 총동창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21회 동기회 (회장 최원종) 일동

“수고 많았습니다” 2년 임기 끝낸 이용흠 전임회장 인터뷰

“동창회 발전기반 다진 게 큰 보람”

2년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이용흠 본부동창회 전임회장은 흥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열심히 했고, 무사히 임기를 끝내고 보람을 느끼며 떠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감을 묻자 “힘들었다”고 대답하게 말했다.

-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

“첫 1년은 재경동창회와의 소통을 위해 서울에 있는 선배들을 많이 만났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빼겨야 했다. 그런 것은 내가 희생하며 몸으로 때우면 됐지만 문제는 재정문제였다. 전반적으로 동창회 운영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이 당초 내가 가졌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재력을 가진 동문들로부터 협조를 얻어내기가 의외로 어려웠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본부동창회의 운영자금으로 년 5천만원씩을 내놓아 왔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본부동창회의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간 열심히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창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역·직능 회장들과 본부 부회장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동안 도와준 회장단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역대 어느 회장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적을 든다면.

“본부동창회 조직을 재정비해서 우리 동창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을 들고 싶다. 본부 덕형포럼, 덕경회, 용마인론클럽 등의 창설, 지역·직능동창회의 활성화, 모교 70년사 발간준비 등등을 들고 싶다. 동창회보의 질적 향상을 이뤄낸 점도 자랑하고 싶다. 또 31회 후배 기수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한 점도 들고 싶다”

- 우리 동창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솔직히 말 하겠다. 잘 화합하지 못하는 점을 첫째로 꼽고 싶다. 본부동창회가 막상 뭘 해보려고 해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남들은, 밖에서는 우리 동창회를 대단하게 보고 있으나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점들이 적지 않다. 동문들의 동창회 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정신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

그는 본부동창회보의 구독료를 내는 동문이 현재 전체 구독자의 10%선에 그치고 있는 점과 매 호 발행할 때마다 광고협찬을 해주는 동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 하나만 봐도 동창회를 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만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2년 전 ‘젊은 동창회’를 표방하며 출범했는데.

“그것을 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솔직히 말해서 만족할 만큼 성과를 이뤘다고 하기엔 미흡하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30회까지는 동창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나 점차 사회활동을 접는 등 노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나이 60살이 넘는 동문들은 대체로 동기회에는 열심히 반면 동창회활동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30회 이후 기수들을 동창회의 주역으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동창회로서는 아주 어려운 과도기라고 본다”

이 회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동문으로 치면 30회 중반쯤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우리 동창회에서는 30회 이후 동문들이 주역이 되지 못하고 ‘어린 동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한창 일하고 활동적인 30회 이후의 동문들이 동창회의 중심이 되도록 동창회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 모교 70년사 편찬에 누구보다 열의를 보였다.

재력 가진 동문들의 협조 기대 못 미쳐
지금 동창회로서는 어려운 과도기
발전기금은 용마장학회가 통합관리해야
동창회장은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못해내

“모교 70년사 편찬은 우리 동창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다른 고교 동창회는 50년사, 60년사를 다 펴냈다. 명색이 명문고 동창회라면서 50년사, 60년사를 건너뛰고 이제야 70년사 운운 하고 있으니 솔직히 창피하다는 심정이다. 70년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갖고 있는 족보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모교와 동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문들은 70년사가 편찬되면 모교와 동문들이 걸어온 길과 이루어 온 역사를 읽고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이번 기회에 꼭 해내야 할 작업이다. 임기 내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 본부 동창회의 모교발전기금 모금 실적이 재경에 비해 크게 밀리고 있다.

“모금된 액수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재경 동창회에 비해 늦게 출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성과가 좋은 편이다. 솔직히 말해 많은 동문들이 적극 동참해



주고 있어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우리 동문들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단결심을 읽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언젠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바닥권으로 추락한 모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 과거 명문고의 영광을 되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발휘할 수 있는 단 한번의, 마지막 기회이니 모든 동문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앞으로 조성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미 설립돼 등록돼 있는 재단법인인 용마장학회가 기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같은 숫자로 구성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민주적으로, 상식적으로 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막상 맡아서 해보니 본부동창회 회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이던가.

“희생정신과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하지 못하는 자리다. 무엇을 누리거나 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다만 전체 동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

- 후임인 오거돈 신임회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동창회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거대 집단이다. 그런 조직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일 것이다. 오 동문은 훌륭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 온 책임자다. 본부 동창회 회장 역할을 열심히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상룡 편집위원(24회)>

성공의 이유는 단순했다
난 항상 그들보다 빨랐다

Master of Acceleration. The new E 63 AM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부산스타자동차(주) 오용승이
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AMG
Performance Center

차장 오용승
H.P : 010.6500.6404
E-mail : ninno64@gmail.com

※경남고등학교 46회

Mercedes-Benz

‘70년사’ 이번엔 유아무야 안돼야

동래고 부산고 부산여고 경남여고는 오래 전에 발간 “지금까지 예산문제 등이 나오면 발 뺏다”

경남중고 70년사 편찬은 동창회의 오랜 숙제였다. 동창회 역사를 편찬하자는 논의는 24년 전인 1987년에 처음 있었다. 당시 ‘50년사’를 발간하자는 발의가 있었으나 유아무야였다.

그 후 ‘60년사’를 내자는 논의가 또 있었으나 이 역시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말만 많았으나 실행을 못한 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본부동창회를 비롯한 우리 동창회 전체의 ‘역량부족’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동창회가 이처럼 50년사, 60년사 편찬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타교의 동창회들은 속속 모교와 동창회 역사를 편찬했다. 부산 지역 교교의 경우만 봐도 동래고 동창회는 일찌기 1979년에 80년사를 낸데 이어 2002년에 100년사를 또 편찬해냈다.

부산고 동창회는 2005년에 60년사를 발간했고, 같은 해 부산여고 동창회도 60년사를 냈다. 경남여고 동창회는 2007년에 80년사를, 데려사여고 동창회도 2004년에 50년사를 각각 발간했다. 진해중고도 1997년 11월 50년사를, 진주여고도 2006년 4월 80년사를 각각 편찬했다. 결국 부산지역의 남녀 명문고동창회들 중에서 우리 동창회만 아직까지 동창회 역사를 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70년사’ 발간책임 맡은 김경희 편찬위원장(9회, 재경동창회 고문)은 “우리가 개교 70년이 내일 모레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정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말이 있었을 때마다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예산문제 등이 나오면 발을 빼고 누구 하나 앞장서지 않았다. 그 바람에 구두선에만 그치고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빼다 있는 가문이라면 제 때에 족보를 정리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색이 명문고라면 개교 50년이나 100년 등 의미 있는 해를 기해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늦긴 했으나 이번만큼은 절대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

論評

발전기금 사용처와 관리방안 밝혀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2011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모교인 경남고가 단 한명도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가 서울대 합격자를 한명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새삼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자료가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산의 다른 일반고인 동래고, 동아고, 대연고가 각기 6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사실과 직접 비교되기 때문이다.

모교 측은 그동안 서울대 합격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수학생들이 주로 특목교와 신도시 등 신흥주택가의 학교에 몰리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변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교와 똑같은 조건의 일반고인 동아고 동래고 대연고 등의 이번 서울대 합격자 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교 측만 탓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모교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와

**“경남고는 동창회가 두 개” 라는 말까지 나와
모금 계기로 동창회 단합을 이뤄내는 지혜 필요
기금 관리 운영 둘러싸고 ‘잡음’ 나오면 안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모교발전기금 조성운동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낸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금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기금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이 그 적기(適期)다. 이것은 동문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일부에서 “돈만 모으면 다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발전기금 사용처 및 운영, 관리방안이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는 지난해 ‘모금은 각기 별도로 진행하되 목표액이 다 모아지면 기금을

본부동창회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재경동창회가

중에 동창회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더 일찍 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우리 동창회가 단합과 화합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은 전부터 있어 왔다. 거기다가 “경남고는 동창회가 두 개”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각기 따로 논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모교발전기금조성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여간 다행이 아니다. 경향 각지는 물론이고 재외 동문들 까지 박수를 보내며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것도 ‘모교중흥’이라는 절박한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교발전기금 조성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모교중흥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첫째다. 목표액이 모아지면 그 돈으로 모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도록 하기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많은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번 운동을 계기로 ‘한번 해보자’는 동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동창회의 단합을 이뤄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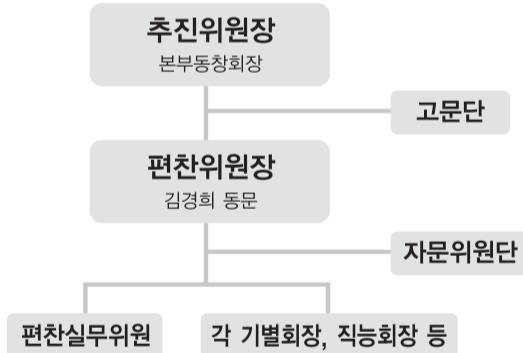
앞으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운영 관리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모교발전기금 관리와 운영을 놓고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대립하는 등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잡음’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의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사심(私心)없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협의를 통해 상식과 순리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 ‘論評’은 동문 다수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고 동창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바른 소리를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회보 편집실>**

70년사 편찬 기구표



◇ 고문단(11명) 명단

- △송두호(3) △우명수(5) △박동열(8) △장혁표(8) △박성조(9) △안강태(11) <이상 본부동창회>
- △정동식(1) △한준석(3) △문택상(4) △박영식(7) △이상택(13) <이상 재경동창회>

동창회보 구독신청 / 주소변경 = 본부동창회 사무실
Tel 051) 245-7551~3 / Fax 051) 245-7550

오거돈 총동창회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신태양건설 회장 박상호(26회)

모교발전기금 접수 현황

고액 기탁 갈수록 늘어... 모교중흥 열망 반영
본부동창회 접수 분 5억원 돌파



송두호 (3회)



이용흠 (19회)



장성복 (22회)



김진철 (25회)

송두호 (3회 · 전 국회의원 · 본부동창회 고문) 1천만원

이용흠 (19회 · (주)일신설계 회장 · 본부동창회 회장) 1천만원

장성복 (22회 · 대원 보세장치장 대표) 1천만원

김진철 (25회 · (주)디오 회장) 1천만원

이재완 (34회 · 수미지이비인후과 원장) 5백만원

김태선 (20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 3백만원

장상배 (20회 · (주)광복쇼핑 대표) 3백만원

정규식 (20회 · 정규식비뇨기과의원 원장) 3백만원

정용환 (20회 · (주)삼화물산 대표이사) 3백만원

최장하 (20회 · 최요한성형외과의원 원장) 3백만원

김성수 (31회 · 在 영국 런던) 3백만원

강수현 (12회 DSG대동벽지(주) 대표이사) 2백만원

손성근 (17회 · 울산병원 정형외과 과장) 2백만원

장승구 (17회 · 세방금속(주) 전무이사) 2백만원

김동욱 (23회 ·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백만원

원인건 (23회 · 바른눈안과의원 원장) 2백만원

34회 동기회 (회장 : 이재완) 1천만원

41회 동기회 (회장 : 이양걸) 7백30만원

- 이양걸 (41회 · 이노인테리어디자인 대표) 2백만원 등

<2011년 1월 8일 ~ 3월 22일 기탁자 중에서>

<본부동창회 접수분 - 누계>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main alumni association. Includes names like Gu Gyeon-jun, Kim Hee-cheol, Song Du-ho, etc., with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amounts.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branch alumni associations. Includes names like Park Shin-do, Park In-sa, Park Jae-gu, etc., with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amounts.

- 합계 : 5억 7,888만원
<2011년 3월 22일까지>

기금기탁 관련문의
동창회 사무실 황유명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동기회 소식

◇ 14회 = 정기총회



지난 1월 13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모임에서 이재인 국장의 2010년도 업무 및 결산보고와 박중철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 신입회장에 허민영, 감사에 유정호, 이수남 동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 이날 김재도 전임 회장은 “동기들의 활발한 참여로 졸업 50주년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되었다”며 “입기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이임소감을 피력.

◇ 23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3일 동래 온천장 소재 '더파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46명의 동기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2010년도 결산 및 동기회 기금에 대한 보고, 2011년도 사업계획 발표와 발전기금 납부 독려가 있었다. 한편 신입회장에는 김태용 동문이 임명되었다.

◇ 15회 = 연석회의

지난 1월 10일 '원향제'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인 동기회 집행부와 자문위원들은 차기 동기회장에 김학현 자문위원을 만장일치로 추대, 선임했다. 최병우 전 회장은 “동기들의 단합된 마음에 감사드린다.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관한 제반 업무는 차기회장에게 일임하겠다”며 차기 동기회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준 신흥규 자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 24회 = 한라산 적설등반



24회 산악회인 '山友愛'는 지난 2월 25일 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라산 적설등반과 올레길을 탐방. 참석한 17명의 대원들은 태창업 회장과 안형수 산행대장의 리더로 눈 쌓인 한라산을 오른 뒤 쇠소깍, 성산일출봉, 다랑쉬 오름, 비자림, 올레 10코스 등을 탐방. 이들은 재경 산악회 '산타레'의 손인수 회장과 동기들을 만나 뒤풀이.

◇ 26회 = 정기총회



지난 1월 21일 르네상스 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상원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재경동기회 이진학 회장의 축사, 이규생 총장의 2010년 결산보고

및 왕정일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신입회장으로 하원규 동문을 추대. 하원규 신입회장은 “동기 분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 발전과 동기회의 화합,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이날 참석한 90여명의 동기들과 그 가족들은 행운권 추첨과 노래자랑, 게임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7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 부산 서면 '터존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기회장 이, 취임식이 있었으며 2011년 동기회 사업, 운영진 구성, 4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 등을 논의했다. 신입회장에는 강봉호 동문이, 발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우 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 29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 '일미횃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 동기회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신입회장에는 박성철 동문이, 수석부회장에는 전장화 동문이 각각 피선.

◇ 31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18일 노블리아 씨푸드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재경 회장단을 비롯, 6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결산보고에 이어 2011년 사업계획과 동기회 발전사항 등이 논의됐으며 신입회장으로 오민일 동문을 만장일치로 재추대.

◇ 41회 = 정기총회



지난 1월 19일 하단 강촌훼미리타운에서 정기총회 겸 월례회를 개최. 24명의 동기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2010년 수입 지출 결산의 건, 모교 발전기금 모금 동참의 건, 임원 임명의 건 등이 논의됐다.

동호회 소식

◇ 기독교동문회 = 정기총회



지난 1월 27일 협성르네상스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공기화 회장(21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진도영 고문(5회)의 기도, 이상백 수석부회장(22회)의 연혁보고 및 예종복 총무(25회)의 사업보고 등에 이어 신입 임원에 회장 박자민(21회), 수석부회장 이상백(22회), 총무 김대현(33회), 서기 박종현(23회), 회계 정원규(31회), 감사 김세준(20회), 강순석(21회) 동문을 각각 선출. 박자민 신입회장은 “기독교동문회의 창립 목적을 계승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경남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협조와 기타 기독교동문들이 하고 있는 문화 사역, 노숙자 밥 퍼주기 사역, 선교 사역 등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무엇을...

<8회>

△김병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현대성우아파트 283동 904호 △문동현 = 부산시 남구 대연2동 1219-213 △염병영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311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101동 801호 △이정윤 = 남해 자애원 원장, 2011 사회·문화부 ‘용마상’ 수상 △장혁표 = (재)효문화지원본부 이사장, 3월 1일 효문화지원본부 개소식 개최 △조석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48-5

<10회>

△고석명 = 2월 23일~3월 1일까지 개인사 진전 ‘머물지 않음 MONOXIA’ 개최. 서울 갤러리토포하우스 △이윤수 = 1월 11일 한국해양대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에서 ‘자랑스러운 해대인상’ 수상

<12회>

△최수행 = 3월 1일 아들 결혼, 서울 ‘용사의집’ 웨딩홀

<13회>

△김수일 = 1월 29일 장남 결혼, 해운대그랜드호텔 △김승기 = 2월 12일 장녀 결혼, 서울 종교교회 △박정웅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126번지 101호 △배인기 = 3월 2일 차남 결혼, 서울컨벤션 △심진

영 = 울산시 동구 전하동 549-14 현대전하아파트 103동 102호 △안홍석 = 1월 29일 차남 결혼, 서울 엠플러스컨벤션웨딩 △이규채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30 대우마리나아파트 204동 701호 △이상택 = 안양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 ‘2010 세종나눔봉사대상’에서 특별대상 세종상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상 수상 △장미추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285 유림아시아드 106동 1102호 △정연호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85-1 선경아파트 6동 1201호

<15회>

△김준군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811 해운대SK뷰 아파트 101동 801호 △이기준 =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151 코오롱하늘채 골든비치아파트 102동 1803호 △이창일 = 부산시 남구 대연1동 894-18 황제빌라 B동 301호 △최병원 = 1월 30일 차남 결혼, 부산 남천성당

<16회>

△홍용찬 = 우성해운 회장, 1월 17일 서울대 상과대학 총동창회 신년하례회에서 상대를 빛낸 ‘빛내자상’을 수상

<17회>

△노재윤 =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자문교수, 2월 아산병원 정년퇴임 후 국립암센터

에서 근무 △백철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푸른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2509동 1403호 △송승구 = 2월 12일 차녀 결혼, 서울 밀알학교 △양성일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231-1 △이광석 = 작년 12월 18일 아들 결혼, 롯데호텔부산(지난 호에 16회로 소개돼 정정합니다.) △전 광 = 동양명리학박사, 책 ‘명품인생디자인’ 출간

<18회>

△강종식 = 굿모닝요양병원 근무,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 1065-1 (051)815-3333 △박순정 = 2월 19일 딸 결혼, 롯데호텔부산 △송인철 = 부산 만덕 다사랑병원 근무 △이흥수 = 결혼정보회사 ‘좋은인연’ 사무실 이전, 안락동 정금B/D 302호, (051)816-5300 △조성제 = 헤민요양병원 병원장, 부산시 동구 범일1동 62-744, 011-556-2362 △지문석 = 부산 만덕 다사랑병원 근무 △허영태 = 수영나라요양병원 근무, 016-643-4116 △허태열 = 3월 3일 장녀 결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

<19회>

△김영우 = 대청농산 대표, ‘2010 Top Fruit Project 종합평가회’에서 유공농업인 국무총리 표창 수상 △배무삼 = (사)부산민속연보준회 이사장, 010-2552-6475 △오재호 = 대일보세창고 대표, 010-3554-3135 △이양환 = 부산시 서구 부민동 3가 19-3 △홍태원 = 2월 12일 차남 결혼, 대

구인터블고호텔

<20회>

△공영건 = 3월 5일 장남 결혼, 서울컨벤션 △김형수 = 3월 19일 장남 결혼, 남서울교회 △김형오 = 3월 23일 딸 결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고문 취임 △노승구 = 3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 수아비스 △윤재일 = 3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 △이윤선 = 3월 6일 장남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정병순 = 2월 20일 딸 결혼, 망미성당

<21회>

△고 성 = 1월 29일 차녀 결혼, 오션드라마르 △김갑렬 = 1월 중 캐나다 이민 △이동채 = 2월 26일 장남 결혼, 신라호텔 △최동완 = ‘제14회 신사임당 이울곡 서예공모전’ 특선

<23회>

△김태용 = 2월 1일부로 부경대학교 부총장 취임 △김태정 = 3월 27일 딸 결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박수갑 = 2월 13일 아들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신해철 = ‘동부CN’ 컨설팅부문 사장 취임 △유원형 = 2월 26일 장남 결혼, 서울 S컨벤션 △이성기 = 2월 20일 장남 결혼, 창원컨벤션센터 △정웅성 = 2월 24일 차녀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주창경 = 3월 19일 장남 결혼, 고양 백석동성당

“오늘은 19회의 날”

지난 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19회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이날 모임에서 이용흠 본부동창회 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신임 임우근 재경동창회장이 19회이고 저 또한 19회”라며 “저가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본부동창회 회장이고 임우근 재경동창회 회장도 19회이니 오늘은 19회의

날”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왼쪽에서 8번째가 임우근 회장, 10번째가 이용흠 회장, 오른쪽에서 5번째가 박성철 재경동창회 회장.

<24회>

△김병수 = 3월 5일 장남 결혼, 서울 신라호텔 △김일현 = 2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앰플러스컨벤션웨딩 △박인호 = 3월 3일 부로 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취임 △이 완 = 3월 12일 딸 결혼, 미국 △이재욱 = 2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 엘타워 △이창무 = 2월 19일 장남 결혼, 서울 곤자가컨벤션 △장일형 = 3월 2일부로 한컴 대표이사 사장 취임 △차동렬 = 3월 12일 장남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차문공 = 1월 16일 차남 결혼, 경주 아리웨딩홀 △최석구 = 인제대 ‘서울백병원’ 병원장 취임 △최현규 = 1월 15일 장녀 결혼, 창원 더시티세븐 풀만 엠버서더호텔 △하희조 = 2월 12일 아들 결혼, 서울 오금동성당

<25회>

△김길수 = 4월 9일 장남 결혼, 해운대백스코웨딩홀 △김문국 = 2월 12일 아들 결혼, 서울 약현성당 △노규환 = 1월 7일 딸 결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박성길 = 1월 23일 아들 결혼, 서울 엘타워 △박영수 =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3월 3일부로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장 취임 △심영재 = 2월 12일 장녀 결혼, 서울 엘타워 △우진태 = 2월 19일 장남 결혼, 밀레니엄서울힐튼 △이동익 = ‘이동익세무사사무실’ 개업,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앞 △이용우 = 2월 26일 장녀 결혼, 센텀임페리얼 웨딩홀 △하대중 = 3월 2일부로 CJ E&M 대표 취임 △한석정 =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3월 3일부로 동아대 부총장 취임 △황기철 = 2월 26일 차남 결혼, 서울 롯데호텔월드 △故김효길 = 2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 삼성화재빌딩

<26회>

△김석동 = 2월 26일 장남 결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김정원 = 2월 26일 차녀 결혼, 고양 웨딩캐슬 △박봉희 = 2월 7일부로 울산지검 공안과장으로 승진 △박종국 = 2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센터장 취임 △배갑상 =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부임 △이규생 = 3월 2일부로 해광고 교감으로 승진 △전상섭 = 3월 26일 장녀 결혼, 서울 역삼동성당

<27회>

△강창권 = ‘가온치과의원’ 원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1 3F, (031)718-2727 △김형철 = 3월 1일부로 연세대 송도 캠퍼스 국제교육원장으로 승진 △남경진 = 1월 18일 캄보디아 현지 의료봉사 활동과 외국인학교 협력 등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캄보디아 국가재건훈장’ 수상 △유재결 = 해강중학교 교장 취임 △이종찬 = ‘STIC인베스트먼트(주)’ 부산지사장으로 승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벤처타운 402호, 011-9711-2128 △정남근 = 진주 고려병원 영상의학과로 이전 근무

<28회>

△김명철 = 독일스님, 법당 이전으로 3월 13일 개원 법회 개최,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773-8 2F △김인호 = 광주고검 부장검사, 저서 ‘하늘의 특별검사’ 출간 △김재주 = 3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장충교회 △박석환 = 2월 9일부로 외교통상부 제1차관 취임 △손영수 = 4월 2일 장남 용암군 결혼, 서울 컨벤션디아망 △이대권 = ‘KBS디지털시청100%재단’ 사무국장 취임 △이명재 = 실비집 ‘청송집’ 개업, 부산 중구 대청동방면에서 국제시장 쪽 국민은행 뒷길, 011-565-3887 △이원철 = 2월 26일 장남 결혼, 노보텔엠베서더부산 △전남실 = 2월 26일 장남 결혼, 해운대그랜드호텔 △조병현 = 2월 16일부로 서울행정법원장 취임 △허대석 = 서울대학병원 종양내과 센터장 취임

<29회>

△김상규 = 1월 29일 장남 결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박창언 =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박해운 = 1월 27일부로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취임 △신병철 = 교사, 제주 표선고등학교로 전근 △양승오 = 3월 9일부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병원장 취임 △호상모 = ‘한국전력공사 호주법인’ 바이롱사업본부장, 19 Honeysuckle Drive, Newcastle, NSW 2300, Australia, 61-418-310-063

<30회>

△김병섭 = 3월 1일부로 개금여자중학교로 전근 △김성준 =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소장, (051)327-8601 △김영주 = 대구 카톨릭신문 편집국장 △김영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 교수, 스포

동기회 회장과 국장 명단

(3월 10일 현재 / 각 기별 회장-국장 순)

△3회 = 류영렬 / 이 경 △4회 = 양종학 / 고재환 △5회 = 김정규 / 이문기 △6회 = 이길상 / 최병수 △7회 = 김광욱 / (공석) △8회 = 이태호 / 도은영 △9회 = 이대규 / 최성욱 △10회 = 서정철(국장겸임) △11회 = 이명 / 이상태 △12회 = 남기용 / 강창수 △13회 = 이용웅 / 장영길 △14회 = 허민영 / 반미태 △15회 = 김학현 / 조일랑, 최원수 △16회 = 이종철 / 옥윤석 △17회 = 박신도 / 김동조 △18회 = 박도형 / 오수명 △19회 = 임태석 / 김영진 △20회 = 김태영 / 장춘식 △21회 = 최원종 / 변창섭 △22회 = 손연모 / 조흥기 △23회 = 김태용 / 김상영 △24회 = 김성권 / 이현재 △25회 = 박종찬 / 여성조, 옥동훈 △26회 = 하원

규 / 최의수 △27회 = 강봉호 / 백민호 △28회 = 윤경섭 / 김성희 △29회 = 박성철 / 김정상, 이충원 △30회 = 이학수 / 우흥제, 이원용, 홍인기 △31회 = 오민일 / 김태근 △32회 = 이상헌 / 이환용 △33회 = 류장근 / 배성수, 황영복 △34회 = 이재완 / 오주훈 △35회 = 정운성 / 김세정, 양영수 △36회 = 김병주 / 임창섭 △37회 = 김영근 / 김치언 △38회 = 김승일 / 광동일, 신동훈 △39회 = 박인석 / 박용한, 이상학 △40회 = 이기 / 이강욱 △41회 = 이양걸 / 류지섭, 조원호 △42회 = 박기열 / 정홍준, 홍택선 △43회 = 임진성 / 이재웅 △44회 = 강경호 / 김경진 △45회 = 조청래 / 정일균 △46회 = 김문희 / 송영주 △47회 = 김동휘 / (공석) △48회 = 박주용 / 김유석 △49회 = 최진영 / 김성재, 김학균 △50회 = 서석진 / 김석훈 *

츠과대학장 겸임 △김옥성 = 3월 26일 장녀 결혼, 서울 현대문화센터웨딩홀 △김인섭 = 부산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전무 △김홍수 = 2월 25일부로 ‘포스코’ 상무(투자실장) 승진 △박상용 = 2월 7일부로 감사원 행정정보감사국 제4과장 승진 △윤인태 = 2월 16일부로 창원지방법원장 취임 △이동대 =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대학장 겸직 △이상정 = 동양화학그룹 ‘(주)유니드’ 부사장 △이석재 = 2월 12일 딸 결혼, 서울 오금동성당 △이성관 = 2월 11일부로 롯데쇼핑(롯데 시네마) 상무로 승진 △장정찬 = 3월 1일부로 월곡중학교 교장 취임 △최거훈 = 변호사 사무실 이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동주B/D 1103호, (051)505-0803 △허 준 =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31회>

△김학현 = 부산외국어대 총무부 부장으로 승진 △박덕중 = ‘기업은행’ 창원 반송지점 지점장으로 승진 △손진기 = 대광발명과학과 과학부장 △안우현 = 부인 성미씨 최성미의원 개업,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9-2 반포쇼핑 4동 501호 △윤정수 = 3월 12일 장녀 결혼, 서울 JS강남웨딩문화원 △이정근 =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장 △조봉우 = 두송중학교 행정실장

<32회>

△권병근 = ‘SKC&C’ 공공영업본부장(상무)로 승진 △양한광 = 서울대학병원 외과교수, 위암 센터장에 선임 △윤성수 = 서울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혈액암 센터장에 선임

<33회>

△김범영 = 원장으로 있는 김&정신경외과의원이 1월 5일부로 ‘김&정해운대병원’으로 승격,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61-1 울트라타워 8F, (051)702-7017 △김영길 = ‘치킨신드롬’ 개업, 부산 하단 가락타운 3단지 후문 앞, 010-5398-4489

<34회>

△석원혁 = ‘MBC일산 DreamCenter’ 부국장으로 승진 △윤동섭 = 강남세브란스병원 기획실장

문 상무 △박외병 = 경찰청 외사정보과장 (총경) △이원보 = 해군 대령, 진해 전대장

<36회>

△유상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7회>

△강주영 =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

△신영소 = ‘현대증권’ 과천지점 차장

<38회>

△김선기 =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팀 팀장

<39회>

△박준민 = 헌법재판소 판사

<40회>

△김형훈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41회>

△박상환 = ‘큰나무정형외과’ 개업,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사하소방서 근처, (051)208-1004 △홍석우 = 동의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로 취임

<42회>

△박일수 = 2월 13일 결혼, 서울 교통회관 웨딩홀

<43회>

△백승엽 = 대법원 재판연구관

<44회>

△정희정 = 3월 26일 결혼, 부평 웨딩의전당 노체

부음

▲구하서(6회) = 전 삼원금속공업사 회장, 1월 13일 별세,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노선태(8회) = 2월 12일 별세 ▲이규형(8회) = 성전암 철용스님, 1월 7일 별세 ▲최병식(11회) = 선일치과의원 원장, 1월 18일 별세, 동아대학병원 장례식장 ▲박진(14회) = 2월 17일 별세,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김성오(17회) = 2월 13일 별세,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이우기(17회) = 2월 1일 별세, 부산메리놀병원 장례식장 ▲허영무(17회) = 대원상사 대표, 2월 8일 별세,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황길휘(18회) = 1월 27일 별세, 대동병원 장례식장 ▲김의학(19회) = 1월 24일 별세 ▲이한선(24회) = 제일GMB(주) 대표이사, 1월 29일 별세,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이일석(28회) = 2월 18일 별세, 부산중앙성당

인물 포커스

YS - “맹순이 참 고맙소, 내 이 말밖에는 없데이” 손 여사 - “니도 한마디 해라” 재촉에 “좋아서 살았지예”

결혼 60년... 회혼식 가져

김영삼 전 대통령(3회)과 부인 손명순 여사가 결혼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4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혼식(回婚式)을 가졌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민주화를 이뤄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 일은 대견스럽다”며 크게 웃었다.

김 전 대통령이 “맹순이 참 고맙소, 내 이 말밖에는 없데이”라고 하자 분홍 양장 차림의 손 여사는 “후훗”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김 전 대통령이 특 치며 “니도 한마디 해라”고

재촉하자 손 여사는 수줍게 “좋아서 살았지예”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키스를 부탁한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 망설임 없이 부인의 볼과 입술에 입을 살짝 맞췄다. 여든 넘는 손 여사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1951년 6·25 전쟁 중에 만났다. 김 전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 3학년, 손 여사는 이화여대 약학과 3학년으로 23살 동갑이었다. 두 사람은 선 본 뒤 한 달 만에 식을 올렸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제 아내 손명순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남편인 저를 높여 주었다. 젊어서는 고생도 너무 많이 했다. 화를 잘 내는 저에게 언제나 져 주었다. 아내는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YS가 부인 손여사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환·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희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만수 동문 산은금융 회장 겸 행장 취임

강만수 동문(18회,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산은지주 회장은 산업은행장을 겸하게 된다. 강 동문을 임명제정된 금융위는 “강 내정자가 국내외 경제, 금융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미래의 산은금융지주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강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7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시작해 재무부 보험국장,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등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정책발전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조언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 정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으면서 공직에 복귀, 이른바 MB노믹스의 아이콘으로 불려왔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책임론이 불거졌으나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했다.

2009년 개각에서 경제사령탑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아왔다. 공직생활 동안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실무작업의 책임을 맡은 것을 비롯해 금융실명제와 금융감독, 중앙은행제도 개편, 금융개방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정책들을 다루었다.

부인 하인경(64)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허창수 동문 전경련 회장 취임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동문(21회)이 지난 2월 24일 제 33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 경제외교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국가적 과제를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동문은 구인회 LG 창업회장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허준구 LG건설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세인트루이스대에서 MBA학위를 취득한 뒤 77년 LG그룹 기초실로 입사, LG상사, LG화학, LG산전, LG전선 등 LG그룹내 계열사들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 세계 6위의 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이끌고 있다. 2002년 작고한 부친 허준구 LG건설 명예회장을 쫓 빼달았다는 소리를 듣는 허 동문은 흰철한 용모에 깔끔



한 매너로 ‘영국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성격이 소탈하고 스스로 나서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스타일이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깅 및 걷기, 등산 등을 좋아한다고 한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해 온 경력으로 영어, 일어에 능통하며 탁월한 국제 감각을 지니고 있다. 허 동문은 그동안 우리 동창회 활동에도 열성을 보여 왔다. 그에게 거는 우리 동문들의 기대가 크다.

이용흠 동문, 공학박사 학위 영득 환갑 넘은 나이에 이룬 만학(晩學)의 꿈

이용흠 전임 본부동창회 회장(19회)이 지난 2월 18일 부산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동문의 박사학위 논문은 ‘맥락주의(脈絡主義)와 근대 건축’으로 건축에서의 맥락주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고 맥락주의를 건축에 적용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맥락주의(contextualism)는 사물과 사건 등을 ‘변화와 새로운 관점성’을 파악하려는 근대 철학의 한 가닥이다.

이 동문은 건축설계 회사 경영과 바쁜 사회활동을 해오느라 틈틈이 학문에 정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 동문은 “이 나이에 박사학위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8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 재미가 있어서 계속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동문들에게 동창회보 직접 개별 발송해드립니다

본부동창회는 재경지역을 포함, 전국의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보를 직접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누락된 동문께서는 구독신청을 해주시면 접수 되는대로 바로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구독신청/주소 변경신고 =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051) 245-7551~3 / Fax 051) 245-7550

온 국민 울린 故 이태석 신부는 ‘자랑스런 경남고 동문’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린 故 이태석 신부의 짧았지만 귀했던 삶이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상과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담은 KBS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가 작년 말 영화관에서 개봉돼 40만명이 관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데 이어 그의 1주기(지난 1월 14일)를 맞아 KBS가 후속 특집프로를 제작해 방영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고 이태석신부가 우리의 자랑스런 동문(경남고 35회)이라는 사실(회보 제381호 7면 보도)이 점차 알려지면서부터다.

다큐영화 ‘울지마 톤즈’와 고인이 타계 직전에 펴낸 책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를 통해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은 감동 그 자체다. 그는 경남고를 졸업한 뒤 인제대 의대로 진학, 인턴과정과 군의생활을 거치면서 앞날이 보장되는 의사로서의 길을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의대생으로 여름방학 때 아프리카로 여행 갔다가 남수단 톤즈에서 그곳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고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라고 결심하게 된다. 그는 의대를 졸업한 뒤 신학대에 다시 입학, 2001년 사제서품을 받고 바로 가난과 전쟁과 질병의 그늘에 떨어진 남수단 톤즈에 자원해서 간다.



이 신부가 쓴 책 표지.

그 절망의 땅에서 그는 8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지인들을 위해 헌신한다. 그는 톤즈에서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300명의 환자가 찾아왔다. 100km를 며칠이나 걸려 걸어와 밤에 문을 두드리는 환자도 마다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그 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톤즈에 퍼졌다.

톤즈 사람들은 그를 “쫄리 신부”라고 불렀다. ‘존 리(John Lee)’라는 세례명을 그렇게 발음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왜 굳이 신부가 됐느냐고, 의사로서도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갔느냐고,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그 모든 물음에 이 신부는 이렇게 답했다. “예수님께선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 (마태 25)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부는 마실 물이 없어 썩은 강물을 그대로 마시는 현지인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손수 벽돌을 짚어 병원을 지었다. ‘울지마 톤즈’에서 그는 자신에게 묻고 답했다.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 같다.” 그는 학교를 지어 초중고 11년 과정을 꾸리고 진료를 하는 틈틈이 학생들에게 직접 음악과 수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마침내 남수단에서 유일한 브라스밴드까지 만들기도 했다. 그는 사제이자 의사였고 교사이자 음악가였다.

그는 입으로 강론하기 보다는 삶으로 강론했다. 특히 톤즈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환자들을 형제처럼 보살폈다. 한센인들의 몸에서 손수 고름을 짜내고 그들의 몽그리진 발에 신발을 맞춰 신겼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의 나환자들을 보면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온 작은 예수님이자 천국의 열쇠이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울지마 톤즈’에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 그의 꾸밈없는 미소와 항상 밝은 얼굴표정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 자신

의 전부를 던져 봉사하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소와 얼굴표정이었다.

이 신부는 2년마다 한번씩 국내에 들어오는 기회에 주위의 권유로 우연히 종합검진을 받았다가 말기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 그 판정을 받은 바로 그날 그는 ‘톤즈주민들을 위한 자선기금모금회’의 무대에서 밝은 표정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는 당장 다시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다가 2010년 1월 14일 선종(善終)했다. 그의 나이 48세였다.

고 이태석신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그가 9살 되던 해 혼자가 된 모친은 샴바느질로 10남매를 어렵게 키웠다. 어릴 때 집(부산 남부민동) 가까운 송도성당에 다니며 성당을 놀이터 삼아 지냈다. 성당에서 풍금을 스스



생전의 이태석신부가 남수단 즐리마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신부는 “괜찮아질 것이다. 나아지고 있다. 빨리 회복해서 톤즈로 가고싶다”고 말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동기인 양영수 동문(35회 동기회 국장)은 “고인은 학교 다닐 때 ‘표 안나는’ 친구였다. 차분한 성격으로 공부만 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도 항상 밝은 얼굴이었고 음악을 좋아해 소풍가면 기타를 갖고 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는 것. 양 동문은 “3학년 때 예비고사를 친 뒤 있었던 학교축제에 이태석 동문을 포함해 5명이 그룹사운드를 만들어 무대에 섰던 일이 생각난다”며 “그 때 이태석군이 울건을 맡았고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달무리’, CCR이 부른 팝송 등을 함께 연주하며 노래했다”고 털어놓았다.

양 동문은 “이태석 신부가 선종하기 두 달 전 서울성모병원으로 병문안 갔는데 그것이 이 친구를 마지막 본 것이 되고 말았다”며 “그 때 그는 병상에서 ‘일주일에 2박3일씩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동기들에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도 재주가 많았고 할 일도 많았으나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갔으나 스스로를 태워 향기와 빛을 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절망의 땅에서 8년간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나환자 치료하며 “그들을 통해 예수님 존재 느껴” 경남고 다닐 때 그룹사운드 조직, 울건 연주하며 노래 병문안간 동기들에게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로 익히며 음악에 빠져들었다. 이 신부가 의사의 길을 접고 신학대에 진학해 신부가 되겠다고 하자 모친은 “이미 아들 딸 하나씩을 하나님에게 바쳤는데 왜 우리 태석이까지 또 데려가려하느냐”며 흐느꼈다고 한다. 이 신부의 형은 카톨릭 신부이고 누이는 수녀다.

이 신부의 동기들에 따르면 그는 경남고에 다닐 때 아주 조용한 학생으로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동기인 이종호 동문은 2009년 가을 동기 몇 명과 함께 서울 신길동의 한 수도원에서 요양 중이던 이태석신부를 병문안했는데 그 때 이

울산지역 동문들 ‘이요한 톤즈회’ 결성 故 이태석 동문 뜻 기려 아프리카 어린이돕기

故 이태석 신부의 유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섰다. 울산지역동창회 소속 동문들이 지난 1월 이 신부의 세례명을 딴 ‘이요한 톤즈회’(회장 장승재, 12회)를 결성, 회원들이 매달 1인 1만원씩의 성금을 모아 아프리카어린이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서정욱 동문(15회, 전직 고교교사)은 이태석 신부의 삶을 소개한 ‘울지마 톤즈’를 우연히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지난 1월 초 울산지역의 35회 동문 10여명 등 33명의 동문들을 규합, 이 모임을 발족시켰다.

‘이요한톤즈장학회’는 첫째달인 지난 1월 회원들이 낸 성금 40만원을 ‘수단어린이장학회’에 보냈다. 2월 들어 서면서 주위의 일반인까지 참가해 현재 회원 수는 45명

으로 늘어났다. 이 장학회는 앞으로 우리 동문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이 신부의 뜻을 받들어 남수단 톤즈 외에도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모임의 총무인 서 동문은 “이태석 신부는 톤즈에서 헌신하는 동안 도움이 절실했을 텐데도 35회 동기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문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동문은 또 “6·25 때 우리가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됐으니 매달 1만원의 작은 정성으로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 등 못사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자랑스런 동문인 이태석 신부의 뜻을 기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욱 동문 연락처 : 010-7760-3628> *

恩師列傳 ④ - '허허발발' 許鉢 선생님

경고와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천재' 선생님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허발(許鉢)선생님은 내가 1학년 때 우리 반(1학년 4반) 담임선생님이었다. 독일어 선생님이라기에 나이가 좀 드시고 성격도 깐깐한 분이 아닐까 지레 짐작했었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몸집이 아주 우람하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젊은 분이였다. 선생님은 그 해(1952년도) 경남고에 갓 부임해 오셨고 그때 나이가 24살로 총각이었다.

한 반 전체 이름 외워 역순으로 호명

고려대 학부에서 역사를, 대학원에서는 철학을 전공했으니 '천재적인' 독일어 실력으로 당시 추월영 부산여고 교장에게 발탁돼 부산여고에서 처음으로 교단에 섰다. 그러다가 부산여고에서 겨우 7개월만 가르치고는 추 교장이 경남고로 부임할 때 함께 우리 학교로 스카웃 돼 온 것이었다.

선생님은 첫 만남부터 우리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첫날 출석부를 보며 우리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씩 호명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예 출석부도 보지 않은 채 우리 반 전원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워서 출석을 불렀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바로 그날 오후 종례시간에 일어났다. 우리 반 전원의 이름을 이번에는 맨 끝 번부터 역순으로 암기해서 한명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호명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로 우리들은 단번에 선생님에게 압도당하고 말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허발 선생님은 천재'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이 때 부터였다. 그리고 선생님의 특이한 외자 이름으로 '허허발발'이라는 별명도 뒤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과연 선생님의 집안은 '김해에서 알아주는 수재(秀才) 집안'이었다. 만형인 허립 선생님은 부산 동광초등학교, 부민초등학교, 부산사범부속에서 교장을 지냈고 셋째 형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데 평생을 바치신 그 유명한 논비 허웅 선생님이였다.

낭만과 멋이 있었던 독일어 수업

무엇보다 선생님은 열정적인 수업으로 우리들을 독일어의 세계로 이끌어 갔다. 어렵고 딱딱해서 배우기가 어려운 독일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또 재미있게 가르쳤

다. 한 마디로 선생님의 독일어 수업에는 낭만과 멋이 있었다. 독일의 명시(名詩)들을 소리 내서 줄줄 외우도록 해 독일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게 하고 그 시에 담긴 시적 미학을 체득하도록 했다. 독일 명곡들도 원어로 부르게 했다. 그때 선생님께서 배웠던 독일노래가 베토벤의 'Ich liebe dich', 슈베트의 '아베마리아', 'Serenade', 보리수(Lindenbaum), 들장미(Heidenroslein) 등이다. 내가 지금도 이 노래들을 원어로 품 잡아가며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덕이다.

언젠가 10회 동기회의 회고록 '구덕동산 마음의 고향' 출판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고석명 동문과 진 강동문 등이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로 시작하는 괴테의 시 미뇽(Mignon)을 원어로 거침없이 암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경남고 재학 중에 허발 선생님께서 배운 것이구나'하고 생각했다. 선생님께서 독일어를 배웠던 동문들은 대개 지금도 보리수나 들장미 등 독일 노래 한 두곡쯤은 원어로 멋있게 부를 줄 알 것이다.



고려대 독문과 교수로 재직할 때의 허발 선생님 모습.

축구부 야구부 감독 맡아 제자들과 함께 땀 흘리기도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해 '행동파'로 매사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였다. 축구와 야구도 잘하는 만능선수여서 축구부 부감을 5년간이나 맡았다. 우리 9회에서 당시 축구부의 주장은 배운한 군이였고 선수로는 송성득, 윤방옥, 박성조, 김광우, 주건중, 김상찬, 안병환, 박호일 군 등이였다. 그 때는 운동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에 뒷산의 사격장(지금의 체육관자리)과 농구장에서 연습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면 울산 방어진에 있는 송성득군 집과 의령군 남산 밑의 윤방옥군 집으로 합숙훈련을 가서 15명의 축구부원들과 격의 없이 한 방에서 먹고 자며 함께 땀 흘렸다고 한다. '순수 야

마추어팀'이었던 경남고 축구부는 그 시절 경남선수권 대회 고등부에서 준우승까지 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준결승전에서 만난 부산상고팀과 결승전에서 맞붙은 부산공고팀의 '새까만 다리'와 우리 경남고팀의 '하얀 다리'가 무척 대조적이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선생님은 우리가 졸업한 이후에는 야구부 부감도 3년간 맡아 청룡기대회 결승전에 나가기도 했다. 당시 결승전에서 유격수인 마동명선수(15회, 현 뉴욕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9회 마지막 수비 때 상대선수가 친 높이 뜬 공을 놓치는 바람에 역전패 당한 것을 두고두고 애석해 했다.

제자 사랑 각별해... '선생님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어

선생님은 딱 부러지는 성격에 옳은 일이라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섰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달랐다. 1학년 때 급우 윤종대 군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2학기부터 장기결석을 한 것이 3학년 진급 때 문제가 됐을 때 앞장서서 교칙까지 개정, 윤군이 대학진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일은 우리 동기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선생님은 교실에서는 엄격했지만 교실 밖에서는 격의 없이, 마치 친동생들을 대하듯 우리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었다. 나는 독일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처음엔 선생님께서 혼도 많이 났으나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선생님께서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녀야했던 나를 선생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으나 가난으로 거의 학업을 포기할 지경이었던 내가 경남고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 선생님은 경남고에서 11년간 가르치고(7회로부터 15회까지)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1년 6개월간 연수를 한 뒤 귀국, 37살의 나이로 고려대에 독문과 교수로 부임했다.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을 두루 섭렵한 선생님을 모교인 고려대가 모셔가다시피 해 발탁한 것이다. 선생님의 전공은 독어학(Die Wortfeldtheorie)으로 한국에서 독어학 이론의 개척자였다. 허 선생님은 고려대에서 30년 동안 가르치고 1994년 2월 정년퇴임했다.

경남고에 입학해 처음 허 선생님과 만난 이후 어느 듯 6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물줄기가 바뀌고 삶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법이다. 나는 경남고 시절 허 선생님을 은사로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큰 복이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선생님께서 많은 걸 배웠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

선생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곳곳하신 모습을 오래도록 뵈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2010 용마의 밤〉 광고협찬에 감사드립니다 협찬광고료 납부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말 가졌던 〈2010 용마의 밤〉 축제는 일간지(부산일보,국제신문,파이낸셜뉴스)에 낸 동문 여러분의 광고협찬 덕분에 성대하게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협찬으로 도와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광고협찬금을 입금시키지 않으신 동문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산은행 028-01-032907-5 경남중고동창회

苦學과 休學 속에 다져진 靑雲의 꿈

그 때 그 시절 이야기

김기춘(12회, 前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나는 고향 거제도의 장목면 외포리에서 외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4년에 마산서중학교(현재의 마산중)에 입학하였다. 당시 휴전 직후여서 마산고등학교는 군대가 수용해서 사용 중이었고, 마산중학은 운동장에 군용천막을 치고 수업을 했다. 천막 안은 여름엔 찌는 듯이 무더웠고, 겨울엔 난로를 피웠어도 너무나 추웠다.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국어, 영어, 역사 과목이 재미가 있었고 성적도 좋았다. 전교생들을 운동장에 앉혀놓고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내가 성적이 좋아 우쭐했던 기억이 난다.

마산중 3학년 졸업 무렵에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생겼다. 당시 나의 가형은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거제도 본가의 가세도 기울어 두 아들의 수업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다. 나의 아버님은 나에게 부산사범학교에 진학하도록 권하셨다. 철도고와 사범학교는 국비로 공부를 시켜주고 졸업 후에는 취직도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범학교는 시험기간도 특차여서 그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일반고교에 응시하는 게 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님의 말씀대로 부산사범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교사였던 이익조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더니, “너는 사교가 논리적이고 성적도 우수하므로 장차 법과대학에 가서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는 것이 가장 적성에 맞는데, 굳이 사범학교에 진학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법률공부를 하라고 강하게 권유하시는 게 아닌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자 마치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반드시 법과대학에 가야 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때 부산대학에 재학 중이던 형님께서도 경남고를 거쳐 법대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조해 주었다. 결국 이로 인해 사범학교

진학을 원하신 아버님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드디어 어머님께서 나서서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본인이 즐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 집안이 어렵더라도 기준이 가 하자는 대로 해 줍시다.” 하고 간곡하게 아버님을 설득하여 나의 경남고 진학이 이뤄졌다. 만약 그 때 내가 사범학교로 진학했다면 아마 나의 삶의 궤적은 아주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안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합격까지 된 사범학교를 버려두고 경남고교에 입학함으로써 부모님께 큰 부담과 심려를 드렸을 뿐 아니라 나에게는 어려움이 닦혔다. 경남고 1학년 때부터 여유 있는 집에서 가정교사로 중학생을 가르치며 숙식을 해결하는 등 고향으로 버티다가 결국 2학년 진학 때 1년간 휴학계를 내고 말았다. 어렵게 가게를 낸 아버님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경남고 1학년 때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앞줄 가운데가 필자.

경남고 1학년 때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앞줄 가운데가 필자. 주사급)에 임용되어 시골 군청의 과장 정도로 취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통고시 시험은 논문식으로 법학통론, 국사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우선 보통고시부터 봐

중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서도 나는 경남고 때 휴학으로 뒤쳐졌던 그 1년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에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동기생 중 유일하게 합격했다.

경남고 2학년 재학 중에 특별한 추억(?)이 있다. 그것은 J선생님으로부터 혹독하게 뺨을 맞은 사건이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의 승낙을 받고 가사일로 조퇴하기 위해 원형교사 문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교무실 창문을 열고 생물선생인 J선생님이 “어이 학생, 이리 와봐” 하고 불렀다. 무슨 일인가 하고 교무실로 들어갔더니, “입 다물어” 하더니 불문곡직하고 얼굴에 주먹질을 해 대어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부르셨다. 영문도 모르고 매를 맞은 것이다. 그 때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왜 이러냐고 하니 J선생님이 “무단 조퇴 하길래 혼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담임선생님의 해명으로 그 정도에서 풀려났으나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J선생님이 착각한 모양인데 선생으로서 이유도 묻지 않고 폭행한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내가 법무장관이 되어 우연히 그 선생님을 만난 일이 있는데, 나는 그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J선생님의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하나같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인재를 키우겠다는 정열과 투지가 선생님들에게서 넘쳐났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경남고가 명문고로 우뚝 서게 됐고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명문 경남고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에게서 배우고 뛰어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청운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나는 분명 행운이다. 비록 가정교사로, 자취로 고향을 했을 망정 돌이켜 보면 경남고 그 시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정말 아름답고 보람찬 한 때였다. *

가난으로 휴학하는 바람에 12회로 졸업 고2 때 보통고시 합격, 서울법대 3년 땀 사시 합격 “고학했던 그 시절이 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찼던 때” “명문 경남고 다닌 건 나에게 큰 행운”

그러자 담임선생님이었던 안상년 선생님과 반장이었던 곽정출 군이 나를 불러 “급우들이 수업료를 모아 대납할 터이니 학업을 계속하라”고 권했다. 그 말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으나 나는 기어코 뿌리치고 1년간 휴학하며 가사를 도왔다. 이 때문에 경남고에 입학은 11회로 했다가 졸업은 12회로 하게 된다.

어느 날 방과 후에 대청동 헌책방골목에서 <考試界>라는 철 지난 잡지를 사 보고는 고등고시 아래 ‘보통고시’라는 시험제도가 있고,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판·검사나 고등문관(지금의 5급 사무관급)에 임용되고, 보통고시에 합격하면 보통문관(지금의 6급

아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시작해 경남고 2학년 재학 중이던 1957년 제11회 보통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로써 우리 아버님께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사범학교 진학 포기에 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 못하는 경우에도 대비해 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 즉 고등고시 예비고사에도 합격해 두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미리 대비했던 것은 남보다 처지가 좋지 않았기에 나름대로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난은 어린 나를 힘들게도 했지만 어찌 보면 나를 지키고 지탱하게 해준 힘이기도 했다. 나

동창회보, 여러분이 만드는 신문입니다

투고, 필자 추천, 의견 제시 환영합니다

- ◇ 그 때 그 시절 이야기 - 재학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담을 풀어봐 주십시오. (A4 용지 3장 정도 길이)
- ◇ 은사열전 - 세월이 갈수록 생각나는 은사님들에 얽힌 이야기를 보내 주시거나 (A4용지 3장 길이 정도) 좋은 의견이나 필자 추천도 받습니다.
- ◇ 편집자에게 - 회보를 읽고 느낀 소감이나 의견을 짧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 ◇ 어디서 무엇을... - 자신과 동기들의 소식이나 근황을 적어 보내 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동기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내주어도 됩니다.

‘바람의 노래’ 심성락 동문(10회)의 아코디언 연주인생 50년

경남고 중퇴 후 아코디언과 운명적인 만남

2년 전에 낸 앨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나의 아코디언 연주인생 50년을 총 정리한 마지막 작품이다. 이제 더는 음악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무엇보다 아코디언을 들고 연주하기가 힘에 부친다.

경남중고 동창회보가 나를 찾아내 굳이 내 이야기를 들겠다고 한다. 뒤돌아보면 아코디언 하나로 밥 먹고 살아온 기억 밖에는 없다. 부끄러움이 앞서나 용기를 내 ‘바람같이 살아온’ 나의 지난날들을 회고해 본다.

가난으로 월사금 못내... 담임이 준 이발비에 눈물

내가 아코디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이었다. 경남중을 졸업하고 바로 경남고에 시험을 쳐 합격했다. 명문고에 입학해 우쭐한 기분이 없지 않았으나 그 즈음 집안사정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웠다. 6.25 전쟁으로 다친 형은 훌쩍 서울로 가버리고 형수님이 국밥장사를 하며 나와 어머니를 뒷바라지 해왔는데 그 형수님마저 집을 나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와 나는 먹고살 방법이 없는 처지였다.

학교에 내야하는 월사금을 몇 달치나 내지 못했다.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루는 물리담당으로 우리반 담임

데 의외로 재미가 있었고 연주가 술술 잘됐다. 당시 광복동에는 ‘신협악기점’이라는 곳도 있어서 가끔 거기에도 들려 그곳 ‘김사장님’의 배려로 아코디언을 만질 수 있었다.

‘나그네 설움’을 작곡한 이재호선생님이 당시 부산 보수동에서 살았다. 나는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임종호군과 함께 이재호선생님 댁을 찾아가 거의 매일 들락거리며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 얼마가지 않아 나는 이재호선생님의 이른바 ‘가방모찌’가 됐다. 보림백화점에서 부산KBS에서 노래자랑대회가 있는 날이면 이재호선생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가 정신없이 구경을 하곤 했다. ‘판따라 세계’에 반쯤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당시 부산KBS 노래자랑에는 단골 아코디언 반주자들이 있었으나 대개 돈이 되는 미군부대 무대에 서기에 바빴다. 노래자랑에 연주자로 나와서도 뽕짝노래는 잘 몰라 전주(前奏)를 하지 못하고 먼저 노래를 시작하게 한 뒤 그에 따라 키와 템포를 맞춰 반주에 들어가곤 했다. 이러니 노래하러 나온 사람들이 ‘왜 전주가 없느냐’며 투덜대곤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재호작곡가가 어느 날 농담 비슷하게 나에게 “너가 아코디언 반주해”라고 말해 엉겁결에 아코디언을 넘겨받아 반주를 멋지게 해냈다. 이렇게 몇 번하다보니 부산KBS측에서 아코디언 전속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아코디언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내가 아코디언 하나로 평생 밥 먹고 살게 된 연유가 이랬다.

내 마음에서 경남고 잊은 적 없어

내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의 본명은 ‘심임섭’이다. 부산KBS에서 아코디언 전속연주자로 있을 때였다.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군속가수를 모집한다며 반주를 해달라기에 갔더니 당시 도미노레코드사 사장이며 ‘빈대떡 신사’를 작곡한 한복남선생님이 ‘심임섭이? 이름이 그게 뭐냐?! ‘성락’으로 바꿔”라고 하는 바람에 그 때부터 ‘심성락(沈聲樂)’이 내 예명이 됐고 이 이름으로 지금껏 살아왔다.

경남고를 자퇴한 뒤 그래도 뭔가 아쉬웠던지 내 동기생들이 졸업식 하던 그 날 학교에 올라가 멀리서 사진을 한 장 찍고는 내려왔다. 그 후로 10회 동기모임이나 동창회에는 일절 나가지 않았다. 몇몇 동기가 동기회에 나오라고 자꾸 권유하기도 했으나 경남고를 중도에서 그만 둔 것이 좀 찝찝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잘된 동기들이 설치는 모임에 ‘판따라’가 돼 동기들 앞에 나서기가 좀 창피했다. 아무튼 지난 세월 경남중고 동창회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으나 내 마음에서 경남고를 잊은 적이 없다. 나에게 ‘모교’라고 부를 학교는 그나마 경남고 뿐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올라와 방송국 경음악단의 멤버로, 밤무대와 가수들의 녹음작업 참여 등으로 이름을 날릴 때였다. 어느날 무대에 있는데 당시 KBS의 간부인 ‘이상업’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 큰 절을 하며 “저 쟁고 15월입니다. 선배님인 줄 몰라 봤습니다” 이러는 게 아닌가. 그 때나 지금이나 신문에서는 나를 ‘경남고 졸업’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기자들에게 ‘경남고 중퇴’라고 사실대로 밝혔는데도 나를 봐준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나 그 학교 중퇴 했소”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일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앨범표지



세계최고의 아코디언연주자 리처드 갈리아노와 함께 ‘인어공주’를 녹음하는 장면.

인 박옥현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월사금을 독촉하러나보다 해서 마음을 졸인 채 교무실로 갔더니 “너 오늘 저녁 우리 집에 가자”고 하셨다. 어두운 마음으로 동대신동의 선생님 댁에 갔더니 그날 본 물리시험의 채점을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닌가. 선생님이 주신 답안을 보고 채점을 끝냈더니 “저녁 먹고 가라”고 하신다. 아마 나의 집안사정을 듣고 싶어하시는 듯 했다. 대충만 말씀드리고는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핑계대고 선생님댁을 빠져나왔다. 어둑어둑 해진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손짓하며 불렀다. “머리나 깎아라”며 이발비를 주셨다. 집에 돌아와 선생님이 주신 돈을 앞에 놓고 울었다. 내 문제로 담임선생님을 괴롭혀 드린다 싶어서 죄 짓는 것 같았다. 며칠 결석을 하며 고민한 끝에 그만두자는 결론을 내고 말았다. 무단결석이 계속됐고 결국 2학년 중간쯤에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말았다.

‘뽕짝’ 노래 섭렵... 아코디언 독학해 ‘판따라’의 길로

경남고에 다니면서 내가 제일 친했던 친구는 야구부 투수였던 임종호군이었다. 임종호는 뽕짝노래를 아주 좋아했고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았다. 임종호에게서 당시 유행한 뽕짝노래를 거의 다 배웠다. 전주곡부터 반주까지 즐겼다. 외웠다. 그 당시 광복동 문화극장 앞에 ‘예음’이라는 레코드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점원으로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중 마는중 할 때부터 그 가게에 들락거리며 당시 유행하던 뽕짝노래도 듣고 가게 일을 도와주며 빈둥거렸다. 나중에 이 레코드가게의 절반에 ‘서울악기점’이 입점했는데 진열된 많은 악기들 중 유독 아코디언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갔다. 주인이 자리만 비우면 아코디언을 만지며 임종호에게서 배운 뽕짝노래를 틈틈이 연습해봤는

‘우리나라 아코디언계의 살아있는 전설’

74살 나이에 낸 데뷔앨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심성락 동문은 독학으로 아코디언을 배워 ‘우리나라 아코디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된 인물이다. 경남중을 졸업하고 경남고에 진학했으나 가난으로 2학년 때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아코디언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우연히 부산 KBS 방송국 노래자랑의 아코디언 전속연주자로 뽑히게 되면서 심 동문의 ‘바람 같은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 뒤 서울로 올라와 방송국 경음악단의 멤버 등을 거쳐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의 앨범녹음에 단골로 참여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라 할 수 있는 남진, 나훈아, 최백호, 심수봉에서부터 조덕배, 신승훈, 김건모, 장윤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뒤에는 항상 심 동문이 있었다. 지금까지 260여장의 경음악집을 냈다.

영화 ‘인어공주’, ‘봄날은 간다’, ‘효자동 이발사’ 등 여러 편의 영화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그가 연주한 ‘인어공주’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은 요즘 SK그룹의 TV광고음악으로 나가고 있다.

2009년 심 동문은 74살의 나이로 첫 데뷔앨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낸다. 연주생활 50여 년 간 늘 뒤편에서 남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만 활동해오다가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앨범을 낸 것이다. 세미클래식 곡들이 수록된 이 데뷔앨범에는 음악감독 조성우, 황상준, 박기현 등과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미상의 작곡가로 노미네이트 되었던 신명수, 광고음악계에서 뚜렷한 작품들을 남겨온 오디오 프로듀서 강재덕 등이 무보수로 앨범제작의 키메이커로 참여했다. 몇 년 전 내한 공연 때 심성락의 연주를 듣고 처음 만난 그에게 즉석에서 협연을 요청하기도 했던 세계 최고의 아코디언 연주자 리처드 갈리아노(Richard Galliano)도 이 앨범작업에 무보수로 참여, 협연했다. 따라서 이 앨범은 노 선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후배 아티스트들이 바치는 ‘진정한 의미의 트리뷰트 앨범’이라고 부를만 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녹음한 인연으로 노태우정부 때까지 ‘대통령의 악사’로 지내기도 했다.

어서 내버려둬 왔던 것인데, 후배들이 이렇게 깽뚝이 선배 대접을 하고 나오면 정말 미안하고 죄 짓는 것 같고 창피스럽다.

새끼손가락 없고 한쪽 귀까지 먼 ‘노래하는 아코디언’

나에게는 아코디언 연주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 마디가 잘려나가고 없다. 나는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해방되면서 부산에 나왔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어려서 일본에서 8살 때 장난치다가 유리가 반쯤 깨어진 창문에 매달렸다가 잘라나갔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서 손가락 4개만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하기가 불편한 건 사실이나 알고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아코디언으로 노래를 한다’는 생각으로 연주를 한다. 벨로우즈(아코디언의 주름진 공기주머니)에 바람을 담아 그 바람으로 내 스타일의 노래를 하는 것이다. 악보에 적혀 있지 않은 필(feel)을 찾아내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내는 게 나의 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가수들은 나를 두고 ‘노래하는 아코디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또 나를 ‘대통령의 악사’라고도 한다. 그것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전두환, 노태우대통령 때까지 ‘대통령의 전속악사’로 줄곧 일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단골로 불려가 아코디언과 전자오ργαν으로 반주를 했다.

새끼손가락 말고도 나에게는 연주자로서 또 다른 약점이 있다. 오른쪽 귀가 완전 먹통인 것이다. 한쪽 귀가 멀게 된 것은 1972년인가 73년에 당시 김종필 총리실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 <다음 호에 계속>

/ 尙筆雜記 /

“자장면 나오셨어요”

언젠가 동네병원에 갔다가 진료비를 내는데 수납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성이 “5천2백원이세요” 이른다. 이와 비슷한 ‘이상한 말’을 요즘 너무 흔히 듣는다. “3층이 십니다” “손님, 일시불로 하실게요” “자장면 나오셨어요”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은 없으십니다” 등등.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그린의 핀까지의 거리를 물으면 “120미터 되시겠습니까”는 답이 돌아온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제 판에는 고객들을 최대한 존대한다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모양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아주 귀에 거슬린다.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상황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이런 이상한 어법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존댓말은 반드시 유지·존속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항목에 '그렇다'고 한 국민은 5년 전의 87.5%에서 78.1%로 감소했다. 반면 '존댓말은 상하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 요소가 많으므로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한 국민은 11.4%에서

25.0%로 크게 늘었다. 인터넷에서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존댓말을 없애고 영어처럼 반말만 사용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존댓말 폐지 이유로는 우리말에서 경어사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첫째로 꼽고 있다.

젊은 층에서 존댓말이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에서의 국어 기초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본다. 초등학교부터 우리말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반만년 동안 이 땅에서 탈 없이 사용돼온 경어법이 새삼 문제가 되는 데에는 우리말과 글 보다는 조기영어교육에 더 매달리는 세태와도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말하는 이의 인격을 나타낸다. 멀쩡한 우리말을 비틀고 부러트리고 오용, 남용해대니 결국에는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질서까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말이 무너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자장면 나오셨어요”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바우>

九德골 카메라 산책 - 원형교사



모교 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원형교사

‘덕형관’이라는 뜻 깊은 이름 대신 주로 ‘원형교사’로 불렸다.

10회 전후의 선배동문들이 이 원형교사 지을 때 고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천막교사나 가건물에서 수업하며 틈틈이 학교 뒷산에서 돌을 주워 날라다가 이 건물의 기초를 쌓았다.

교실 배정을 잘못 받으면 한 해 동안 양지와 음지의 차이를 톡톡히 맛봐야 했다. 구름다리 아래쪽 그늘진 교실들이 특히 그랬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2, 3층 베란다에 우 물러나와 잡담을 나누고 아래쪽 동아대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무단히 야유를 보내거나 쑥떡을 먹이며 동아대생들을 놀려먹기도 했다. 우리 동문들에게는 모교 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원형교사,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교실로 쓰이지 않고 도서관이나 동아리실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사진: 김형운(18회)>

신군부의 독재정체에 적극 협조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철학자 이규호를 평가할 때 예외 없이 찬사를 받는 책이 있다. 바로 <말의 힘>이다. 언어를 도구로 하는 문학을 공부하는 나 같은 자에게 젊은 시절 삶과 학문의 지표 역할을 했던 소중한 책들 중의 하나였다. 던져진 하나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언어는 곧 삶 그 자체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가진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힘을 두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재보(財寶)”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편 말의 힘은 양면적이다. 한쪽의 칼날은 병자의 환부를 도려내어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도규(刀圭)이지만, 다른 한쪽의 칼날은 멀쩡한 이를 난도질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흉기다. 즉 언어는 ‘위험한 재보’다. 그 위험성을 잘 아는 철인과 성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범부들에게 말조심을 당부한다. 불테르는 아랍 속담 ‘침묵의 나무에는 평화가 맺힌다’를 패러디해 ‘평화는 진리보다 값지다’라고 결론짓는다.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대갈뺨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드디어 진리를 수호했노라고 외치기보다는 도연명처럼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 따들고 그냥 멍히 남산을 바라보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올바른 이성을 갖춘 자는 진리의 상대성을 알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제자들

김성언의 人文산책

우리네 선인들도 말조심이 오늘날의 불조심보다 더 큰 경계였다. 그들에게 수양의 제1조는 곧 말을 삼가는 일이었다. 조선 명종대의 명재상 상진(尙震)은 젊은 판서가 세상 돌아가는 꾀락서니에 분개해 ‘요순시대 좋은 풍속 지금 사라져가고 / 춘풍 술잔 속에나 남아 있구려’라고 읊은 시를 보여주자, “어허. 무슨 소리! ‘요순시대 좋은 풍속 지금도 남아 있어 / 춘풍 술잔 속에서도 다시 볼 수 있네’라고 해야지”라고 타일렀다. 글자 몇 자 고친 것이 낙(樂)과 비(悲)의 벼랑 끝 대치를 보여주는 예다. 광해군 때의 재상 이상의(李尙毅)은 젊은 시절 어찌나 경망스럽고 망발을 많이 했던지 어느 날 대오각성하고 허리춤에 방울을 찼다. 방울이 울릴 때마다 언행을 경계한 결과 늘그막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도사가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나라나 정치판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다 가시이자 독화살인 모양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반대당으로부터 사격표지판으로 찍혔던 여성 하원의원이 정말로 총격을 당해

죽음 일보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반대당 대표의 가족에 대한 루머를 공식 석상에서 기정사실화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말한 자야 돌 하나 던진 것이지만 맞은 자는 평생 가슴에 피멍이 든다.

헤겔의 말솜씨와 인물에 놀려 평생 스트레스와 콤플렉스를 겪었던 쇼펜하우어는 역설의 수사학으로 불리는 <토론의 법칙>에서, 상대방이 너무 탁월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논쟁의 내용을 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와 그 주변 및 인격까지 공격하라고 조언한다. 이것이 유명한 ‘인신공격의 논증’이다. 그리고 공격이 실패했을 때는 “매우 뻔뻔스럽게 화제의 전환을 시도하라”고 친절히 일러준다. 이것이 유명한 독일판 ‘아니면 말고’ 버전이다.

쇼펜하우어가 21세기 한국 정치판을 보면 아마 자기의 논증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좋아라하면서, 인간이란 ‘신중하지 않게 말을 하고, 나중에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가설이 들어맞았음을 기뻐할 것이다.

<김성언 (24회, 동아대 교수, 한국고전문학)>

여러분이 내시는 구독료로 동창회보가 제작, 발송됩니다

2011년도 회보 구독료(년 3만원) 납부 당부드립니다!

-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계좌 -

부산은행 028-01-032909-1 경남중고동창회

*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꽃 이야기 / 桃花

東風細雨에 눈물 머금은 여인의 자태

도화(복사꽃, 복숭아꽃)는 아무래도 봄비 오는 날에 봐야 보는 맛이 더 있고 운치가 있다. 도화가 필 무렵이면 대체로 비가 잦다.

도화는 무삼 일로
홍장(紅粧)을 지어내서
동풍세우(東風細雨)에 눈물을 머금은고
삼춘(三春)이 쉬우냥하여
그를 설워하노라

(桃花歌/安致英)

이 옛 시조만큼 도화와 봄비의 절묘한 만남을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싶다. 보슬비에 젖어있는 도화에서 불그레한 얼굴로 두 눈에 눈물 머금고 서 있는 여인의 자태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쉽게 지고 마는 도화에 게서 짧은 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까지도 느끼게 된다.

옛 선비들은 도화의 연분홍 고은 자태에서, 특히 세우(細

雨)에 우는 모습에서 요염(妖艷)의 극치를 보았다. 문일평은 <花下漫筆>에서 "행화(杏花/살구꽃)의 美가 요부형(妖婦型)이라면 도화의 美는 염부형(艷婦型)"이라고 했다. 요부와 염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살구꽃과 도화 둘 다 다른 봄꽃들에 비해 선(線)이 가느다란 동양적 미인의 이미지가 강해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매화와 난초의 고상한 맛에 빠졌던 옛 선비들은 도화를 두고 "천한 계집에게 지분단장을 시키고 찬란한 차림새로 꾸몄으나 어색하기 이를 데 없고 목덜미의 솜털은 감출 수 없구나"라고 비하(卑下)하기도 했다. '목덜미의 솜털'은 도화의 열매인 복숭아의 껍질에 나있는 잔털을 말하면서 복숭아의 생김새에 빗댄 성적 이미지를 지적한 것이다.

봄꽃은 대개 피었다하면 성급히 지고 만다. 잠시 때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춘서(春序)라고 해서 봄부터 꽃 피는 순서대로 꽃 이름들을 적어두고는 기다렸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꽃구경에 나섰다.



도화는 연분홍의 자태로 우리를 유혹한다. 사진 위는 바닷가에 핀 야생도화.

시골에서 살 때 집 부근 바닷가에 야생(野生) 도화 몇 그루가 있어 봄철이면 지나다니며 활짝 핀 모습이 보고 즐길 만했다. 요즘은 도시 근교에서는 야생 도화 보기가 어려우니 때 맞춰 과수원이라도 찾아가야 볼 수 있다. * <김치웅 (19회)>

시산책

소주병

공 광 규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 주면서
속을 비워 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계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 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공광규 시인 = 1960 충남 청양 출생. 동국대 국문과 졸업. 1986년 <동서문학>에 <저녁>등 5편이 당선되어 등단. 주요 저서 시집 <목욕 시집 (대학일기) 실천문학사 1987, 시집 <지독한 불륜> 실천문학사 1996, 시집 <소주병> 실천문학사 2004

교통사고 낸 어느 부인이 꺼낸 서류에...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 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찌익' 긁어 놓고 말았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었다. 상대방의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 산 새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툭툭 흘렸다. 나도 그녀가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사고 보고서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관계 서류 등

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는 봉투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담은 봉투예요."

그녀는 또 한 번 울먹였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꺼냈을 때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 쓴 글이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 <출처: 인터넷>

전망이 좋은 횃집

용마 횃집

"깨끗해서 좋고 맛이 있어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용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 051-759-7337
011-574-5030

다시 보는 부산 ① 구덕고개와 꽃마을

옛 풍경 간 데 없고 꽃마을엔 시집은 꽃들이...

글/사진 김형운 (18회)

경남중고를 다녔던 우리에게 부산이란 도시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추억과 그리움이 서려있는 부산의 이곳 저곳을 김형운 동문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 나섰다. 추억을 더듬어 떠나는 김 동문의 도시기행문 <다시 보는 부산>을 연재한다. <편집자>

경남중에 다니던 1960년대 초 나는 서대신동 구덕운동장 뒤편, 구덕수원지 아래쪽에 살았다.

구덕수원지에서 더 올라가면 구덕고개가 나왔다. 어느 가을날 친구와 함께 물 길는 양철통을 하나씩 들고 그 고개를 넘었다. 고갯마루를 지나 학장으로 내려가서 가을걷이가 끝난 논들을 빠져나가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개울을 따라 걸었다.

고기를 잡으러 구덕고개를 넘어갔다

우리는 이윽고 좁은 개울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상류 쪽의 물길을 돌로 막아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참을 수고한 끝에 내려오는 물줄기를 열추 막았다는 판단이 선 두 녀석은 들고 온 양철통으로 웅덩이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을까? 점점 어깨와 등이 아파왔다. 그리고 배가 심하게 고팠다. 그렇지만 웅덩이의 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였다.

우리의 애초 계획은 웅덩이의 물을 퍼낸 다음 그 속에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낼 붕어며 메기며를 건져서 매운탕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운탕은 커녕 사람이 도리어 고기밥이 될 판이었다. 그때 지나가던 농부가 한마디 했다.

“아들이 거서(거기서) 머하노? 거언 물이 밑에서 나!”

개울 바닥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말이였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막긴 했지만 수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였다. 우리는 일순간 맥이 풀렸다. 그 자리에 더 머물 이유가 없어진



옛날의 한산했던 구덕고개의 풍경은 간 데 없다. 구덕산과 임광산과 승학산을 잇는 등산 코스의 요지로서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말이면 인파가 넘친다.

두 사람은 빈 양철통을 들고 왔던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빈 논두렁에 심어둔 콩밭에 없었다. 우리는 주위의 검불을 그러모아 불을 지피고 꺾어온 콩대를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게 무슨 요기가 될까? 입술에 검댕만 묻힌 우리는 허기진 배를 안고 석양이 내리는 산길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야 했다.

변화가로 변한 구덕산 꽃마을

50년 전 그때 구덕고개 위에는 야트막한 판자집들이 작은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 그 시절부터 꽃마을이라고 불렸다. 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았지만 유심히 보지 못했다. 주민들의 모습이 좀체 눈에 띄지 않는 마을의 집들 사이로 소슬한 바람이 지나갔다. 여름에는 아주머니들이 두엇 고갯마루에 앉아서 얼음 띄운 우무 콩국을 팔았다.

그렇게 한산했던 구덕고개가 이제 몰라보게 변화한 거리가 되었다. 경남고가 기슭에 자리 잡은 구덕산과 그 뒤편의 임광산 그리고 남쪽의 승학산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구덕고개에서 교차한다. 그래서 사방에서 등산꾼들이 이곳으로 왕성하게 모여든다. 겨울에도 날씨만 맑으면 울긋불긋 차려 입은 등산꾼들로 붐빈다. 도로 양편에 음식점들이 줄지어 서서 식당거리를 이루고 있다. 시래기국 정식이 여기의 주종목이고 어탕과 오리백숙과 생선구이를 골라 먹을 수 있다. 빈대떡과 막걸리도 빠지지 않는다. 식당거리 뒤편, 옛날에 비닐하우스가 있었음직한 자리에는 높은 그물을 공중에 매단 큰 골프 연습장이 자리 잡았다. 식당거리 어귀에는 꽃더미를 앞에 안은 할머니들이 서넛 자리를 지키며 이곳이 꽃마을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꽃의 재배가 이 동네에서 끝난 지는 오래 되었다. 꽃마을은 이름으로만 남아 있

다. 할머니들이 파는 꽃들은 다 큰 비닐하우스 동네에서 시집 온 것들이다. 다만 도로 위쪽에 전을 편 야채 가게의 채소들은 이곳에서 자랐다. 구덕고개는 1981년 구덕터널이 생김으로써 대신동과 학장을 잇는 통로로서의 기능이 마감되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구덕수원지 골짜기 아래쪽 동네는 1972년 9월 14일 사흘 내리 퍼부었던 폭우 끝에 구덕수원지의 둑이 터지면서 물폭탄에 무너지고 말았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다른 비닐하우스 마을에서 시집온 꽃들로 꽃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구덕운동장 앞 전차 모형의 버스 정류장.

어릴 적 살던 동네는 땅속에 묻혔다

그 후 구덕터널이 생기면서 옛 마을은 터널 입구쪽 도로 밑에 매몰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집과 친구들의 집과 가게와 놀이터 위로 이제는 버스와 택시와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썩썩 달린다.

옛것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이다. 그나마 이 골짜기 자락에 구덕운동장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즐기게 야구 우원을 다녔던 곳이다. 그 운동장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세워둔 전차의 모형도 그래서 정답다. 우리집이 대신동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초랑에서 구덕운동장까지 야구를 보러 전차를 탔었다. *



편집자에게

회보 매달 낼 수 없나?

회보가 날이 갈수록 내용이 알차지고 있어 용마가족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느낀다.

다만 우리 회보가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물론 비용과 인력 등의 어려움 때문일 것으로 짐작하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매달 회보가 나왔으면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고 있을 편집진에게 격려를 보낸다. 김기열 (23회, 언론인)

‘은사열전’에 ‘몽돌이’ 선생님 다뤄졌으면...

‘은사열전’을 읽으면 과거 모교의 빛났던 영광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기를 가르치신 선생님들 중에도 훌륭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조병철 선생님과 기하를 가르친 ‘몽돌이’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두 분 은사님들 이야기도 누가 써주었으면 한다. 김성진(19회)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28년 동안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고객중심 기업 ㈜디오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기업이념아래 기술혁신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전세계 120여개국 판매 네트워크와 30여개의 생산기지를 가진 세계 제일의 덴탈그룹 덴츠플라이의 일원으로 글로벌한 임플란트 전문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디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DIO IMPLANT
(주)디오 회장 김진철 (25회)



(주)디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후원합니다.

DIO IMPLANT (주)디오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서로 66 www.dio.co.kr
대표번호 051.745.7777 팩스 051.745.7778

서울영업소 T.02-2268-2850
경인영업소 T.032-547-2878
경기영업소 T.031-719-6060

부산영업소 T.051-745-7810
경남영업소 T.055-270-5228
대구영업소 T.053-321-2806

대전영업소 T.042-255-2804
광주영업소 T.062-384-2822
강원영업소 T.033-765-2809

울산영업소 T.052-256-2177
포항영업소 T.054-278-5932
제주영업소 T.064-752-5604